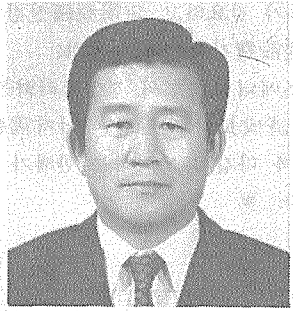


# 84年度 原油導入 政策方向



金振模  
〈動力資源部·原油課長〉

1859년을 起源으로 하는 近代石油史의 대부분은 공급과잉에서 오는 가격과 수급의 조절이 메이저의 카르텔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메이저가 1920년대부터 1970년대를 지배하였고, 197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세계는 두 차례의 石油波動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1960년에 창설된 OPEC (石油輸出國機構)가 1973年 10월의 제4차 中

(表-1) OPEC總會 主要合意事項 推移

區 分	價格(A/C)	市場 狀況
第1回(60年9月) Bagdad 總會	1.80 \$/B	• OPEC設立 • Major 支配下의 緩和
(73年12月) Teheran 會議	11.65 \$/B(72年1月 2.47 \$/B 比 4.7倍) (73年10月 5.11 \$/B)	• 73年10月 4次 中東戰으로 需給逼迫
第52回(78年12月) Abu Dhabi 總會	13.33 \$/B(78年4分 期 14.5% 引上)	• 이란政變으로 需給逼迫
第53回(79年3月) Geneva 臨時總會	14.546 \$/B (價格體 系分裂)	• 上同
第54回(79年6月) Geneva 總會	18 \$/B(上限價 23.5 \$/B上限, Premium 2 \$/B認定)	• 上同
第57回(80年6月) Algier 總會 80	32 \$/B (油種間價格 差를 5 \$/B견지)	• 사우디증산, 선진국의경기회복으로수급은완화
第59回(80年12月) Baly島 總會	32 \$/B(最高價 41 \$ /B 設定)	• 이·이戰으로 需給逼迫
第62回(81年10月) Geneva 臨時總會	34 \$/B(價格 再統一 價格差 3~4 \$/B 합의)	• 先進國需要低下, 在庫增加로 需給緩和
第63回(82年3月) Vienna 臨時總會	34 \$/B維持 (油種間 價格差 1.5 \$/B)	• OPEC生產上 限線17,500千 B/D
第65回(82年7月) Vienna 臨時總會	34 \$/B維持 (심의中 斷, 次期로 延期)	• 上同
第66回(82年12月) Vienna 總會	34 \$/B 維持	• OPEC生產上 限線 18,500 千B/D
第67回(83年3月) London 臨時總會	29 \$/B 引下	• OPEC生產上 限線 17,500 千B/D

東戰과, 1978년 12월 이란혁명의 정치적 事件을 교묘히 이용, 石油을 武器化, 선진국에 대하여 富의 재분배를 요구한 經濟戰의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OPEC가 1982년 3월 제67차 런던 OPEC 총회에서 처음으로 油價引下를 하였다는 것은 石油의 主役으로서의 產油國, 消費國, 메이저 등의 상호관계에 많은 變化를 초래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OPEC시대의 종지부를 예언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原油의 특성이 국제적 商品이고, 南北問題의 상징적 商品이며, 소모하는 有限의 資源으로서 본질적으로 정치, 사회, 군사등 國際力学關係에 의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石油危機와 波動의 필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正反對의 측면을 內包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배경의 原油 그 자체는 우리들 생활에 있어 식량에 匹敵되는 생활필수품이고, 또한 국가의 動脈으로서 국제경쟁력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原油導入政策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合心, 협력하여 중지를 모아 최선의 정책을 汎國家的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적인 原油의 수급상황과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의 방안에 대하여 부족함대로 몇가지 기술해 보고자 하며, 많은 분들의 검토대상이 되었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겠다.

게 予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原油價는 당분간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需要側面에서 世界原油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先進7個工業國의 소비수준이 2次石油波動 이후 代替에너지개발 노력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소비국의 脫石油政策에 따른 에너지 消費量 및 石油消費비율의 저하(表-2 参照)와 현재의 原油價가 생산비를 훨씬 넘어 서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供給側面에서 非OPEC는 확고한 위치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OPEC는 카르텔 기능의 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表-3 参照). 즉 OPEC는 構成員의 非同質性, 13개 국가나 되는 많은 構成員이 통일된 의견으로 수급조절의 탄력적인 대응기능미약 등으로 그 기능은 쇠약해질 수 밖에 없다(表-4 参照). 그러나 1, 2次 石油波動이 보여주듯이 돌발적인 사태는 原油價의 급등과 공급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무서운 교훈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資源의 有限성과 희귀성, 사용의 편의성에 따르는 감축 및 代替의 한계성은 原油의 수급 및 價格不安을 염려케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中東에서의 불안을 내포한 채 OPEC의 증산과 非OPEC인 이집트, 소련, 오만의 原油價가 先行指標로서 하향하고 있어(表-5 참조) 83年初와 비슷한 양상이 OPEC基準油價 再引下說을 說得力있게 만들고 있고, 나이지리아의 軍部쿠데타 이후 쿼타 증가요청 등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예기치 않던 후한이 오래 계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최근의 現物油價의 다소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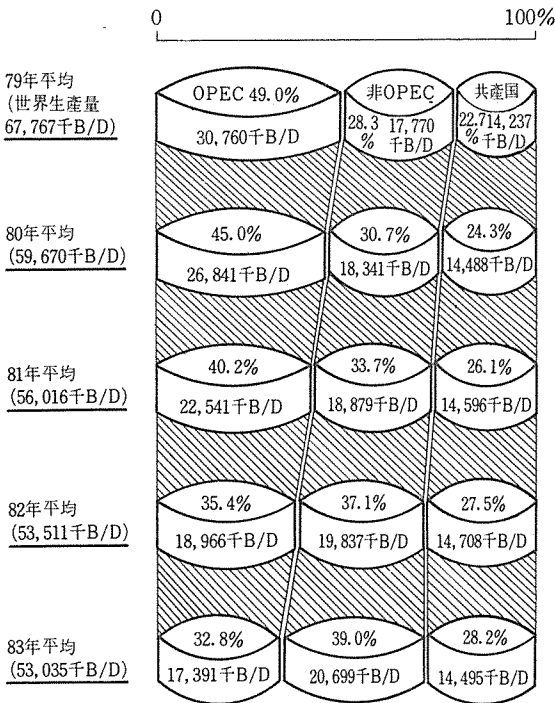
## II. 原油의 需給 및 價格展望

검은 황금 原油의 中長期展望은 그것이 많은 복합적 變數와 變數의 不確実性 때문에 너무나 불투명하며, 더구나 앞으로의 수급 및 가격을 정확하

(表-2) 主要國 에너지消費實績

國 名	韓 國				美 國				日 本				西 獨				英 國			
	77	78	79	80	77	78	79	80	77	78	79	80	77	78	79	80	77	78	79	80
1人당 에너지消費量 (石油換算MT/人)	0.94	1.03	1.16	1.16	8.3	8.5	8.5	7.9	3.1	3.1	3.3	3.2	4.3	4.5	4.6	4.4	3.8	3.8	3.9	3.6
1人당石油消費量 (石油換算MT/人)	0.58	0.65	0.73	0.71	4.0	4.1	3.9	3.4	2.3	2.4	2.3	2.1	2.3	2.4	2.3	2.1	1.5	1.7	1.7	1.4
총 에너지 消費量 (石油換算百萬MT)																				
一次 에너지 最終 消費	34.4	38.3	43.5	44.1	1,810.0	1,876.0	1,874.0	1,809.0	352.0	361.0	376.0	372.0	264.3	272.8	285.0	272.2	211.5	211.6	220.3	201.5
部門別消費(%)																				
產 業	38.1	39.5	43.9	43.3	32.8	33.5	34.4	34.4	59.5	57.7	57.8	57.2	40.3	39.0	40.7	39.6	41.5	39.9	39.3	34.8
輸 送	12.7	14.0	15.7	13.5	34.2	34.6	33.7	33.8	17.1	19.9	19.9	20.6	18.7	19.8	19.0	20.7	21.3	22.3	22.0	24.5
家 計	49.2	47.5	40.4	43.2	33.0	31.9	31.9	31.9	23.4	22.5	22.3	22.2	50.0	41.2	40.3	39.7	37.4	37.8	38.7	40.8
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表-3〉 低下하는 OPEC의 原油生産 比重



〈表-4〉 OPEC會員国の 分類

	Cartel Core	Price Pusher	Expansionist	기	타
65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알제리,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UAE, 이란	리비아, 카타르, 베네수엘라	
73	사우디, UAE, 쿠웨이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이란, 리비아, 카타르, 베네수엘라	
78	사우디, UAE, 쿠웨이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이라크, 리비아, 카타르	
82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리비아, 알제리	카타르	
85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타르	이란, 이라크	

〈資料〉 NRI, 堀口守雄

〈表-5〉 原油價格 변동추이

(단위: \$/B)

国 别	油 種	82. 12	1 / 1	2 / 1	3 / 1	3 / 15	5 / 1	7 / 1	8 / 1	9 / 1	10 / 1	12 / 1	84 1/1
사우디	A/L	34	34	30	29								
	A/M	32.4	32.4	28.4	27.4								
쿠웨이트	Kuwait	32.3	32.3	28.3	27.3								
이란	I/H	29.3	29.3			27.1				27.3			
인도네시아	Walio	34.4	34.4		29.0								
에콰도르	Oriente	30.5			27.5			28.20					27.5
말레이시아	Bintulu	34.1		28.4									
브루나이	Champion	34.1		29.1									
멕시코	Isthmus	32.5	32.5	29									
	Maya	25	25	23					24		25		
리비아	Brega	35.4	35.4			30.4							
이집트	Belayim	28.75	28		25.25					27.25	26.75		26.5
소련	Urals	32.3	31.5	30.2	28		28.5	29	29.5		29	28.6	
오만	Oman	34	34	30	29								28.55
北海	Brent	33.5	33.5	30.5	30								
	Forties	33.5	33.5	30.5	29.75						29.9		
노르웨이	Statjord	33.6	33.6	30.15	29.4						29.8		29.6
OPEC 평균 가격		33.17	33.17	33.10	32.04	28.57	28.44	28.34	28.49	28.48			

\*연도별 OPEC 평균가격 변동추이(\$/B):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3.39 11.28 11.02 11.77 12.88 12.93 18.64 30.87 34.54 33.15

북이 原油價의 現水準維持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2월중 이란-이라크 戰爭의 加熱化 予想, 2月中 日本의 비축수준 향상과 中東에의 사절단 파견 등은 原油價再引下에의 분위기를 약화시키고 있다. 앞으로의 石油情勢는 사우디의 스윙프로듀서로서의 기능, 海上備蓄에의 동향에 주목되고 있다. 사우디의 Norbec을 통한 30~40척의 용선에 의한 大型 탱커 해상비축은 LPG의 생산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라비안 라이트 계속생산은 불가피하고, 반면에 구매자는 아라비안 헤비를 선호하고 있어 아라비안 라이트의 공급과잉을 해

소키 위한 것이 표면적 理由이나 내면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비한 것으로서 오만, 브루나이, 칼리브海 등에 70百萬배럴 규모로 비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쨌든 사우디가 OPEC 價格體制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 해협봉쇄사태 등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價格, 供給面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84年 原油價를 결정할 제반예상 요인과 여러 機關의 84年度 需給展望, 각기관의 原油價展望은 <表-6, 7, 8>과 같다.

<表-6> 84年度 原油價를 決定할 予想諸般要因

油價引下要因	現油價維持要因	油價上昇要因
○이집트, 소련, 에콰도르 등 공식油價引下	○완만한 需要回復	○不安한 中東政勢
○一部石油会社의 北海産油價引下 努力	○消費國의 在庫水準減少로 放出可能規模 低下	○「이·이」戰擴大 및 호르무즈해 협봉쇄 가능성 상존
○나이지리아新軍 事政權의 OPEC 脫退可能性	○사우디, 이란 등의 生産자제 등 現油價 고수를 위한 OPEC의  적극노력	

<表-7> 自由世界 石油需給展望

(單位: 万B/D)

구 분	1982	1983		1984	
		IEA	PIW	IEA	PIW
○需 要	4,500	4,430	4,440	4,510	4,500
○供 給	4,350	4,280	4,340	4,510	4,500
OPEC	1,880	1,730	1,720	1,890	1,840
非OPEC <sup>1)</sup>	2,470	2,550	2,620	2,620	2,660
○재고 변동	△ 150	△ 150	△ 100	0	0

<註> 1) 공산권으로부터의 순수입과 천연가스 포함.  
<資料>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AP-DJ 통신.

<表-8> 기관별 원유가격 전망

전 망 기 관	구 분	82	83	84	85	86	87
OECD (83. 7)	OPEC 평균 가격	33.41	29.35	28.80			
WEFA (83. 7)	명목 OPEC 평균	34.22	29.87	30.27	33.00	36.64	40.68
	실질 OPEC 평균	18.98	15.17	14.32	14.61	15.11	15.51
(83. 10)		34.12	29.89	30.35			
NIESR (83. 11)		33.63	29.59	29.30			
DRI (83. 9)	명 목 가 격		29.34	28.52	30.57	33.15	36.25
(83. Summer)	명 목 가 격	33.31	30.0	29.35	31.28	33.84	37.09
	실 질 가 격	31.44	27.08	25.31	25.66	26.37	27.43
(83. 12)	(1981 불변)	33.32	29.82	29.43			
DOE (82. 12)	81년 불변				25		
Chase Manhattan (83. 4)					26		

### Ⅲ. 84年度 原油導入 政策方向

#### 1. 83년도 原油需給

83년도 원유처리량은 石油製品소비가 전년대비

5.7% 증가하고 賃加工原油處理의 증가로 190,643千배럴이 되어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原油導入도 192,969千배럴로 전년대비 8.2% 증가하였다.

83년도에는 中東依存度가 前年의 76%에서 74

%로 떨어졌으며, 導入國數는 11개국으로 이집트와 이라크가 추가되었다. 특히 83년에는 3월14일 原油價인하와 세계 原油市場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現物市場에서의 도입증대로 약 7.6億달러의 국

제수지 개선에 기여한 바 있으며, 導入金額은 5,768 百萬달러로 도입물량이 8.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前年에 비해 5.1% 감소하였으며, 導入單價는 29.89 \$/B로 前年에 비해 12.2% 감소하였다.

〈表-9〉 導入國別 原油導入実績

[單位: 千배럴, (%)]

區 分	78	79	80	81	82	83
(中 東)	166,532 (100)	184,345 (99.4)	178,057 (97.4)	161,210 (88.2)	135,062 (75.7)	142,881 (74.0)
사 우 디	95,840 (57.6)	98,865 (53.3)	109,557 (59.9)	104,914 (57.4)	89,454 (50.1)	58,876 (30.5)
쿠 웨 이 트	50,789 (30.5)	58,874 (31.7)	49,140 (26.9)	38,753 (21.2)	21,329 (12.0)	20,749 (10.8)
이 란	12,912 (7.7)	19,809 (10.7)	15,515 (8.5)	14,496 (7.9)	21,111 (11.8)	31,415 (16.3)
이 라 크						3,459 (1.8)
其 他	6,991 (4.2)	6,797 (3.7)	3,845 (2.1)	3,047 (1.7)	3,168 (1.8)	28,382 (14.6)
(아 시 아)		1,168 (0.6)	3,471 (1.9)	9,790 (5.4)	22,406 (12.6)	26,301 (13.6)
인도네시아		1,168 (0.6)	3,205 (1.8)	7,489 (4.1)	15,552 (8.7)	8,788 (4.6)
말레이시아				2,301 (1.3)	2,469 (1.4)	9,487 (4.9)
브루나이					4,385 (2.5)	8,026 (4.1)
其 他			266 (0.1)			-
(中 南 美)			1,333 (0.7)	10,349 (5.7)	14,486 (8.1)	11,734 (6.1)
멕시코				1,752 (1.0)	4,677 (2.6)	4,068 (2.1)
베네수엘라			671 (0.4)	1,986 (1.1)	686 (0.4)	-
에콰도르			662 (0.3)	6,611 (3.6)	9,123 (5.1)	7,666 (4.0)
(아 프 리 카)				1,467 (0.8)	6,415 (3.6)	12,053 (6.3)
리비아				1,154 (0.6)	5,868 (3.3)	9,033 (4.7)
이집트					547 (0.3)	3,020 (1.6)
其 他				313 (0.2)		
합 계	166,532	185,513	182,861	182,816	178,369	192,969

〈表-10〉 導入先別 原油導入 実績

[單位: 千배럴, (%)]

區 分	78	79	80	81	82	83
G-G	-	-	53,394 (29.2)	61,303 (33.5)	41,057 (23.0)	20,092 (10.4)
D-D		6,164 (3.3)	35,537 (19.4)	56,141 (30.7)	89,909 (50.4)	147,084 (76.2)
메이저	166,532 (100)	179,349 (96.7)	93,930 (51.4)	65,372 (35.8)	47,402 (26.6)	25,793 (13.4)
計	166,532	185,513	182,861	182,816	178,369	192,969

〈註〉 ( )内는 占有率임.

## 2. 84年度 原油需給計劃

84년도 原油需給計劃은 GNP성장, 제품의 수출입을 감안한 石油수요, 정부비축, 賃加工을 고려시 수요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195,811천배럴,

導入은 前年對比 2.5% 增加한 197,811千배럴로 계획하고 있으며 〈表-11〉과 같다.

〈表-11〉 84年度 原油需給計劃

(單位: 千배럴)

區 分	83	84	前年對比 (%)
需 要	190,643	195,811	2.7
供 給	192,969	197,811	2.5
在 庫	20,129	22,129	9.9

## 3. 84年度 原油導入 政策方向

国内油價의 96%를 차지하는 原油의 비중은 国民經濟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精油社 자체 經營收益面에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안정적인 물량의 供給義務는 국민경제의 안정성장 및 국가안보와 直結되는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현재 原油의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와 기업의 政策選擇基準을 경제적 요인만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低價原油의 도입과 안정적인 확보는 相互 相反되는 개념으로서, 84년도의 原油導入政策方向도 한마디로 상반된 목표의 適正調和, 운영의 妙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하겠다.

○ 原油情報体制의 補強

原油의 安定·低價도입을 위하여는 우선 기초조사와 체계화된 자료의 보유가 急先務가 되겠다. 내용으로서는 世界石油의 수급, 가격동향과 전망, 즉 各 產油國의 공급안정성 및 產油政策, 소비국의 동향 등이 定量化되고, Carding化 되며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되어야겠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 產油國別 原油의 適合性과 경제성의 평가가 병행되어지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原油市況 및 原油 Mix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여야 하겠다.

○ 中長期 原油需給計劃 수립

이러한 계량화된 原油情報의 바탕위에서 原油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중장기 原油導入計劃을 수립함으로써 產油國別과 年度別로 안정적인 도입을 기할 수 있게 되겠고, 한편으로는 年度別로 低價原油의 도입도 기할 수가 있게 되겠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 原油需給計劃의 수립을 통하여 정부와 民間의 장단기 도입정책에 대한 의사소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금년부터는 中長期導入計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겠고 상반기중 시행하였으면 한다.

○ 原油導入先의 多邊化

제 4 차 中東戰爭, 이란-이라크戰爭, 레바논事態 등 일련의 中東事態는 우발적인 전쟁의 발발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導入先의 多邊化를 모든 原油導入國들이 추구하고 있는 현실인 바, 產油國들의 輸出先 多邊化 시책과 一脈相通한다고 하겠다. 導入先의 다변화는 非常事態時에 대비한 개념이므로 多邊化된 導入先과의 협력관계가 加一

層 강화되어야 됨은 물론이지만, 多邊化 대상국의 선정도 중요하다 하겠다. 세계 매장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中東產油國과의 관계는 결코 경시될 수는 없으나, 中東依存度가 86년에는 各精油社別로 60% 이하가 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겠으며, 非常時의 안정확보에 대한 保障이 隨伴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 產油國과의 紐帶強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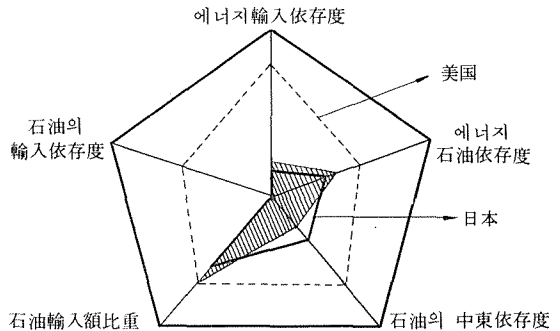
國際原油市場에서의 정치, 경제, 상업적 능력은 關係人士들과의 紐帶親善강화가 필수기본요건이므로 정부는 政府次元에서, 기업은 기업레벨에서 國際原油關聯人士와의 親善交流를 포함한 多方面의 긴밀한 紐帶關係를 형성하는 努力이 있어야 하겠다. 原油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의 Counter Part가 되는 분들과 부단한 人間關係 형성에 주력하고 面識을 넓히는 것이 지금이야말로 적기이므로 실질적인 관계증진을 도모하는 해가 되어야겠고, 이러한 점에서 필요하다면 정부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在庫管理의 統制

우리나라는 <表-12>에서 보듯이 안정도가 他國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危機時에는

<表-12> 에너지 安定度 比較  
(外側일수록 安定도가 높음)

	韓 國	日 本
에너지輸入依存度	74.5	84.2
에너지石油依存度	58.0	64.7
石油 中東依存度	75.7	64.3
石油 輸入額比重	26.5	36.5
石油 輸入依存度	100	99.8



(註) 國內는 82年度, 外國는 80年度 기준임.

多邊化에 의한 안정적인 추가도입과 수요감축, 그리고 우방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모두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가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原油밖에 없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모든 나라가 연간 약 3 \$/B를 초과하는 비용 부담을 안고도 비축을 강행하고 있는 實情이고, 우리도 정부수준에서 60일 수준을 비축코자 하고 있다. 여기에 부응하여 民間精油社도 일정량의 재고 수준을 유지하여 나가는 형태의 비축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 불안이 상존하는 原油市場에서 國家에너지產業에서의 중추적 公益事業을 담당하고 있는 精油社의 책무이기에 精油社의 在庫統制管理를 기하지 않을 수 없겠다. 民間備蓄이야말로 効率的이고 능률적인 備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現物市場原油活用

우리 나라는 비축수준이 여타 消費國家들에 비하여 低位에 있고, 긴급시 석유류 긴급용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자주개발 油田을 갖고 있지 못한 狀況下에서 原油의 100%를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現物市場活用은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그런 점등을 감안하여 中長期需給計劃의 토대 위에서 實導入 精油社와의 협의하에 適正水準의 도입 범위를 매년 설정하여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년에는 現物市場의 好況期인 작년실적 19.6%를 감안하여 20%의 범위내에서만 現物原油導入을 자

유화시키고자 하며, 導入実績에 대하여서는 事後點檢을 실시코자 한다.

○原油導入에 關連되는 制度

정부는 原油導入 회사가 原油導入에 自律性和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原油導入의 一般的인 指針만을 수립한 후 諸般 認許可사항의 自由化내지 간소화를 추진하고, 한편으로 事後點檢을 강화하고자 한다. 민간기업이 할 일은 各社別로 原油市況에 對処하여 Trader와의 교섭능력을 제고하고 有利한 長期契約, 現物市場에서의 直導入等 低價로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V. 結 語

原油導入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原油導入費는 總輸入金額의 26.5%를 차지하고, 석유류의 物價에 대한 직접기여도는 13.6%에 달하고 國際收支는 에너지導入額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뿐만 아니라, 國家危機時에는 국가안보와 直結되는 것으로서 原油는 가장 크고 중요한 戰略物資中的 戰略物資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사람의 판단과 견해에 의하여서만 導入政策 결정은 피하여야 하며, 많은 사람들의 衆智와 討議가 이루어진 연후에 施策이 채택되어져야 할 것임을 부언한다. \*

